

# 전업·겸업 농가의 가정 내 경제문제 인지의 변화

조영숙 · 이덕재 · 황대용 · 박은식 · 고정숙

농업연구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A Longitudinal Study on Farm Householder's Perception of Economic Problem

Young Sook Cho · Dukjae Lee · Dae Yong Hwang · Eun Shik Park · Jeong Sook Ko

Researcher,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trends in recognising an economic concern as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the farm household that was categorised as a full-time farm household or a part-time household according to income structure from agricultural activity. Log-linear models were suggested to compare the change of recognising an economic problem between year 2003 and 2005.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ognising an economic problem between full-time farm household and part-time farm household both in 2003 ( $\chi^2=0.04$ ;  $p=0.84$ ) and in 2005 ( $\chi^2=1.08$ ;  $p=0.30$ ). It was revealed, however, that full-time farm household had increasingly recognised an economic problem over years. Log-linear models showed that full-time farm households tended to recognise the economic problem 1.11 times as much as part-time farm households in 2005, compared to 0.97 times in 2003.

주요어: 농가, 소득만족, 로그선형모델

Key words: farm household, income satisfaction, log-linear model

## I. 서 론

농촌생활의 모습은 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수옥, 유명민, 2003). 이러한 농촌사회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농촌사회 계층 및 사회의 구조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정지웅, 1984; 최양부, 오내원, 1986; 오내원, 정명채, 정기환, 박대식, 박병오, 1998; 최재석, 1988;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a). 또한,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농

촌사회의 변화양상을 연도별로 기술하고 각 연도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기술분석이 시도되어 왔다(박혜인, 유가효, 김민정, 1988; 김수옥, 유명민, 2003). 현대 도시화의 확산에 따른 농촌지역의 변화는 곧 농가의 변화로 이어진다. 전통적 농업생산에 기반한 농가의 유형이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특히 농가 소득 구조에 의하여 전업농가·겸업농가로서 농가형태가 크게 나누어 진다. 전업농가는 가구 소득이 전적으로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농가를 말하며, 반면 겸업농가는 농업수입 이외에 농업외 수입이 많은 농가를 말한다. 겸업농가는 다시 농업

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와 농업수입이 농업외 수입 보다 많은 1종 겸업농가로 구분한다<sup>1)</sup>. 이러한 농가의 다양화는 농가 구성원 및 가정의 역할 변화를 포함하게 되는데, 전업농가·겸업농가의 농가형태 구분에 따라서 농가 구성원의 특성, 행태, 인식, 나아가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e.g. 김일철, 1994; Fuller, 1990; Kinsella, Wilson, de Jong, Renting, 2000; Haugen, Blekesaune, 2005; Lien et al., 2006).

근래 도하개발협상(DDA)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추진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농촌생활지표(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a)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농가소득구조는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업외 소득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가형태에 따른 농가 가정생활의 모습, 특히 소득과 관련된 가정 내 경제문제에 대한 인지가 다르게 현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생활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생활영역 중의 하나이며, 다양한 영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이기영 등, 1995). 이에 따라 가정생활과 관련한 문제점 또한 경제적 문제, 가족원 건강문제, 구성원 간 관계의 문제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 중 전반적인 가정생활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물질적인 조건의 충족은 가정 내의 경제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욕구충족의 요인이다(고보선, 임정빈, 1992; 이기영 등, 1995). 최윤지(1999)는 경제적 문제란 기대수준 향상과 물가상승이 가족의 자원관리에 긴장을 초래하게 된 결과 긴장을 해결하려는 가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영석과 최외선(1993)은 이러한 가정 내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가정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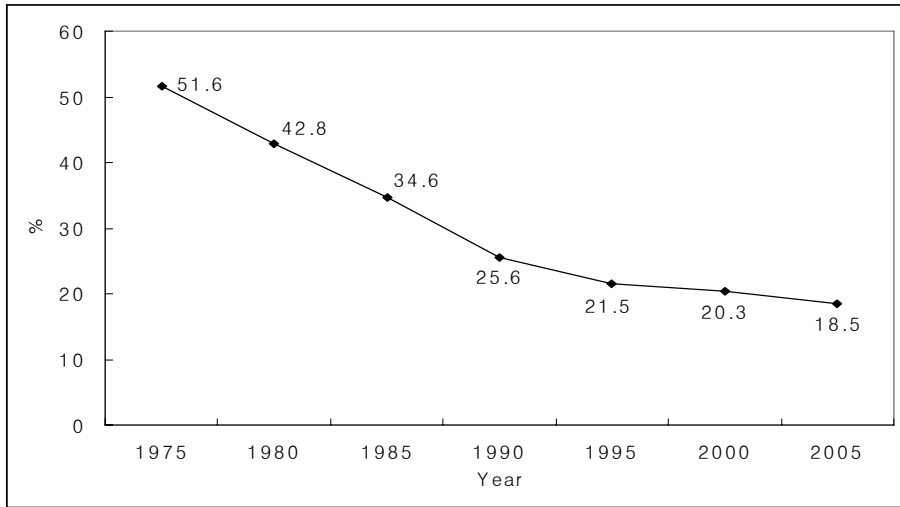
가정 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좌절, 현실도피 등 가정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지영숙, 유현정, 윤원아, 홍기남, 1999).

농가도 소득에 대한 기대수준의 향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질소득의 증감과는 별도로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로 판단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농가 내에서도 농가소득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농가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가정 내 경제문제 인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농가 가정 내에서 경제문제가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로서 인지되어 나타나는 지를 농가 소득구조에 따른 농가형태, 즉 전업농가(Full-time Farm Household)와 겸업농가(Part-time Farm Household)의 구분에 따라 연도별 변화 양상을 기술하고, 각 집단 사이에서 연관의 강도를 대수선형모형(Log-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 II. 농가인구 및 농가수의 변화추이

농가 가정생활의 변화실태를 관측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농촌인구 및 농가수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인구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구의 급속한 도시 유인과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이다. 인구총조사(통계청, 2006c)에 의하면, 농촌인구는 1975년 당시 50%를 상회하는 인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20% 이하로 떨어졌다<그림 1>. 이는 전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인하여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편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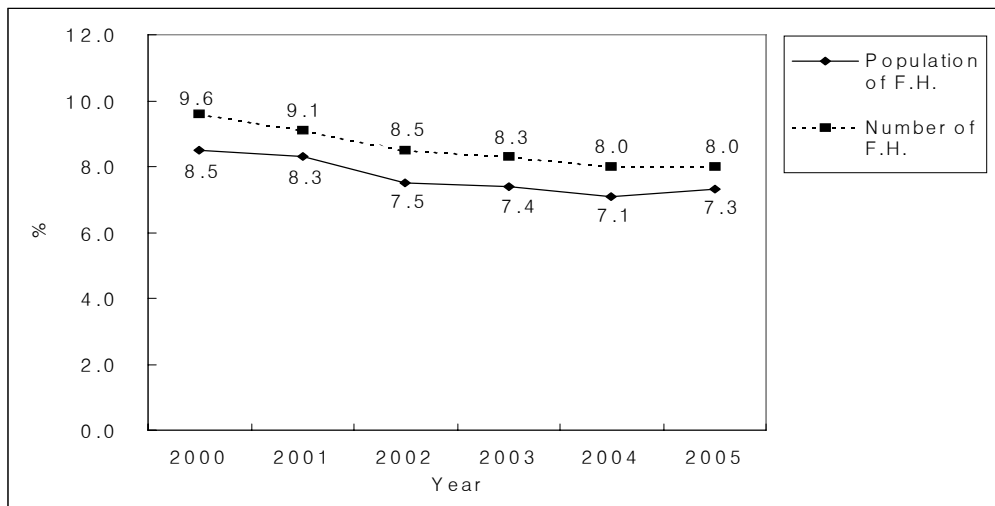
1) 농가경제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 구성원이 있는 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겸업농가와 전업농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 1> 농촌인구의 추이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농가 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농가수의 감소로 연계된다. 지난 10년간 농가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통계청, 2006b), 1990년대 중반에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유지하던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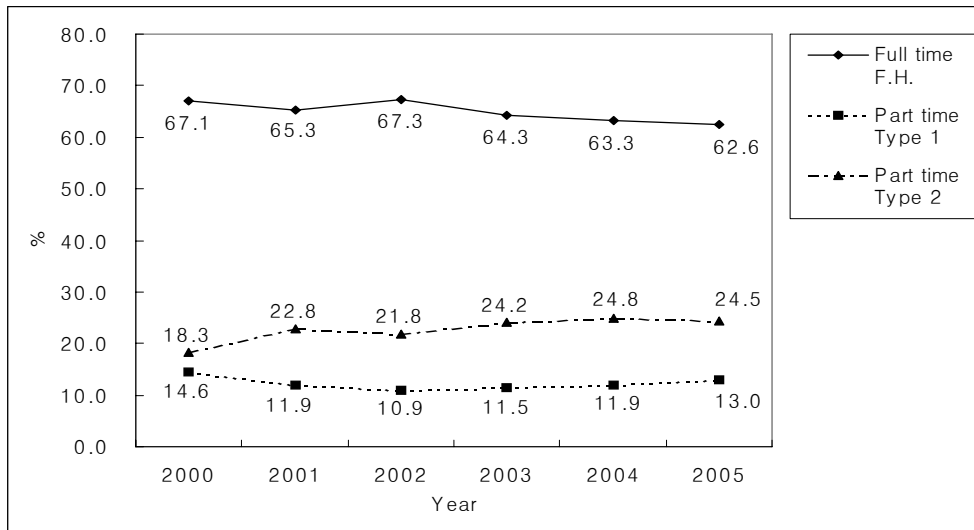
도에는 8% 대로 떨어졌고, 2005년경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으나, 결국 7% 대로 감소하였다. 농가수 또한 감소의 양상을 보이는데, 2000년도에 9% 대였던 전체 가구에 대한 농가수는 2005년도에 8%로 감소하였다<그림 2>.



<그림 2> 농가수 및 농가인구의 추이

특히 농가에 있어서도 수입의 대부분을 농업으로부터 얻는 전업농가의 경우는 2000년 약 67%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62% 대까지 감소하였다<그림 3>. 이에 반하여,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수입을 얻는 겸업농가의 경우는 차츰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업수입이 50% 이상 차지하는 1종 겸업농가의 수가 비슷한 비율을 유지 혹은 상승하

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농촌인구 및 농가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으로서 농업의 비중은 농촌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전업농가 및 겸업농가의 추이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실시한 2000년, 2003년, 2005년에 조사된 농촌생활지표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촌생활지표는 ‘농촌생활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한정되고 대표적인 항목의 계량화 된 척도’로서, 농촌주민들의 생활실태와 수준이 어떠한 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층화집락다단계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전국 읍면에 속하는 농촌지역의 일반가구, 즉 88개 시군 187개 행정리 1,87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b).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정 내

가족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귀댁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① 가족원 건강문제 ② 경제적 문제 ③ 자녀문제 ④ 부부문제 ⑤ 노부모와의 문제 ⑥ 기타 등에 대한 응답의 비율을 기술하고, 이를 경제적 문제와 그 이외의 문제로 나누어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 각 연도마다 빈도수(Frequency)와 백분율을 이용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특히 원자료의 특성에 따라 전업농가와 겸업농가가 구분되는 시점인 2003년

과 2005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비교를 하였는데, 2003년과 2005년의 경우는 전체적인 농가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이에 따른 농가형태별 농가 내의 경제적 문제 인식을 파악, 해석하는데 의미있는 연도로서 판단되었다. 연도별 비교를 위하여, 각 연도마다 차이가 유의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이 실행되었고, 대수선형모형(Log-linear model)을 구성하여 연관의 강도를 살펴보았다.

대수선형모형은 명목변수(Nominal variables)를 사용하는 자료분석을 위한 향상된 통계학적 방법으로, 교차표(Contingency Table)의 형태로 된 범주형 자료의 분석에 용이하며, 연속형 자료의 취득이 어려운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한상욱, 장상수, 1992: Agresti, 1990). 기존의 교차표 분석은 표본자료의 구조적 성질을 파악할 수 없다. 즉, 단순한 유의성 검정은 두 개 변수간의 관계가 독립적 인지의 여부만을 보여주며, 두 변수간의 연관성의 강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변수간의 독립성 검정이 확인되어, 두 변수간의 연관성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연관성의 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수선형모형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의 정도를 기술하는 측정치로서의 교차승비(odds ratio)가 상호작용의 계수로서 산출되어 진다. 이러한 연관성의 강도는 특히 각 연도별로 비교를 하고 변화양상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수선형모형은 교차표 분석에 있어서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과 동일한 해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단지 대수선형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구분이 없이 전개되는 반면, 로지스틱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분별을 갖게 한다. 이러한 대수선형모형과 로지스틱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s)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모형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반응함수의 모형이 에스(S)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의 함수는 아래와 같은 로지스틱 함수로 표현된다.

$$E(Y) = \frac{\exp(\beta_0 + \beta_1 X)}{1 + \exp(\beta_0 + \beta_1 X)}$$

단, E(Y)는 종속변수 Y의 기댓값, X는 독립변수,  $\beta$ 는 회귀계수

이는 주로 패러미터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로짓변환(Logit Transformation)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로짓(Logit) 함수로 나타낸다.

$E(Y) = p$  일 경우,

$$\text{logit}(p) = \ln\left(\frac{p}{1-p}\right) = \beta_0 + \beta_1 X$$

본 연구에서 적용된 대수선형모형은 농가형태(전업농가/겸업농가: X)와 농가의 가정문제 중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로 인식하는 지 여부(예/아니오: Y)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log u_{ij} = \lambda + \lambda_i^X + \lambda_j^Y + \lambda_{ij}^{XY}$$

단,  $u_{ij}$  는 기댓값,

$\lambda_i^X$  는 변수 X에 대한 i줄에 있어서 분류의 효과,

$\lambda_j^Y$  는 변수 Y에 대한 j칸에 있어서 분류의 효과,

$\lambda_{ij}^{XY}$  는 X와 Y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 효과.

모형을 해석(Interpretation)하기 위하여 농가의 경제적 문제 인지(Y)를 종속변수로 하고, 농가형태(X)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짓변환을 실시하였다. 한편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는 특정 대수선형모형이 교차표 자료에 얼마나 잘 맞는가를 재는 척도인데, 기본적으로 관찰값과 기댓값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산출된다. 그러나 기대치를 완벽하게 기술하는 포화모델(Saturated Model)인 경우는 적합도지수는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본 연구는 두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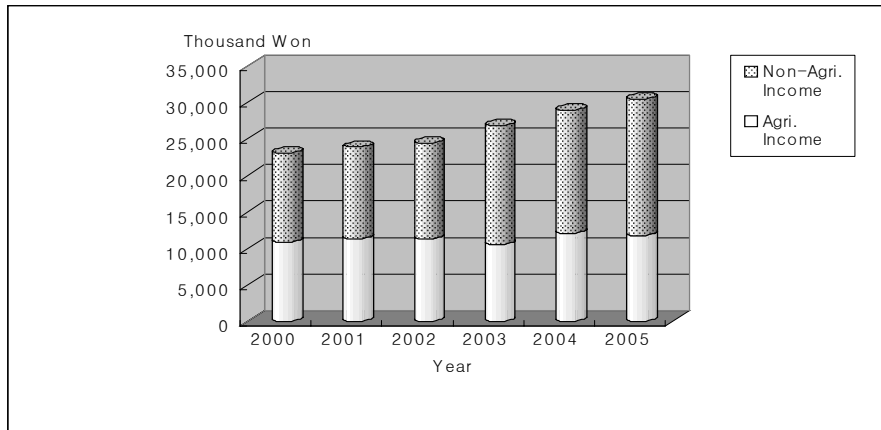
포함되는 포화모델을 형성하게 되므로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지수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 IV. 결과 및 고찰

##### 1. 농가소득 및 소득만족의 변화추이

농가소득(Farm Household Income)은 크게 농업소득(Agriculture Income)과 총소득에서 이를 제외한 농업외 소득(Non-agriculture Income)으로 구성된다. 2005년도 평균 농가소득은 전년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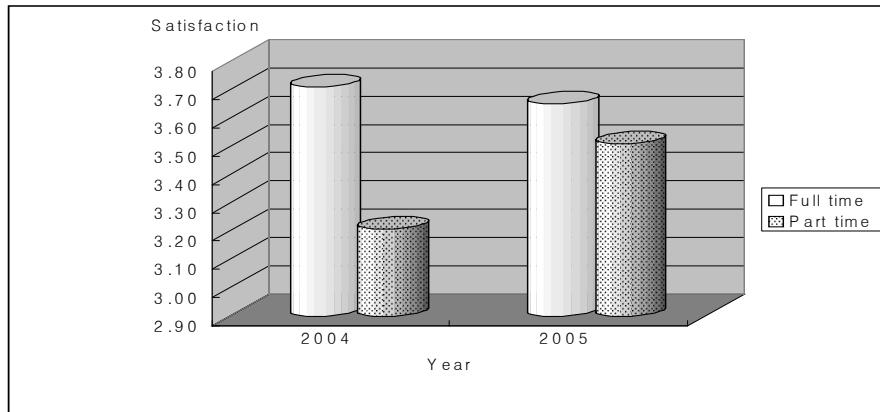
비하여 5.2% 증가한 30,503천원이었다(통계청, 2006a). 이는 농업소득의 약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 소득이 10.2%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이처럼 전체적인 농가소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적인 농업 생산활동으로 인한 농업소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그 이외의 농업외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림 4>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의 추이

전체적인 농가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만족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기대수준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 2006b). 2005년 농가의 소득만족은 전년도에 비하여 별 차이 없이 약간의 감소를 보였는데, 전업농가는 만족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하여, 겸업농가는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그림 5>. 이러한 소득변화와 소득만족의 변화는 전업 및 겸업농가 등 농가형태에 따라 가정 내 경제문제 인식을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농가 가정 내에서 경제문제가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로서 나타나는지를 농가소득구조에 관련된 농가형태, 즉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구분에 따라 연도별 변화양상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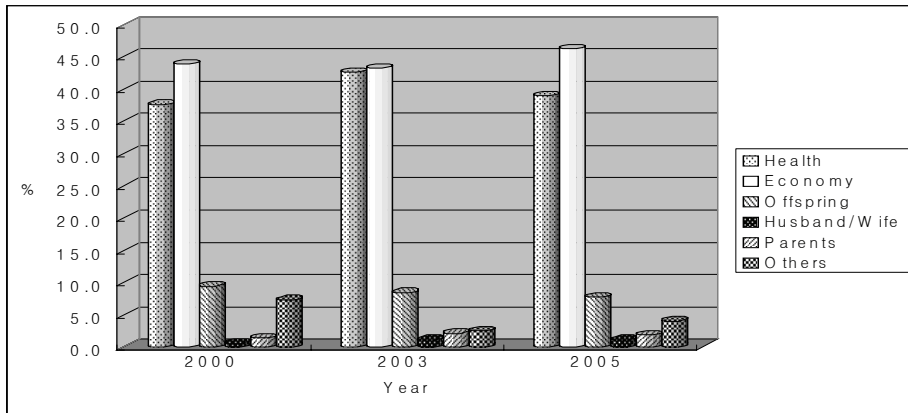


<그림 5> 소득 만족의 추이

2. 가정 내 경제문제 인지의 변화 추이

농가는 다른 도시 가구들과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자식문제, 부부문제, 부모문제 등 다양한 가정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 경

제적 문제는 농가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2000년, 2003년, 2005년 모두 40%를 상회하여 다른 가정문제들 보다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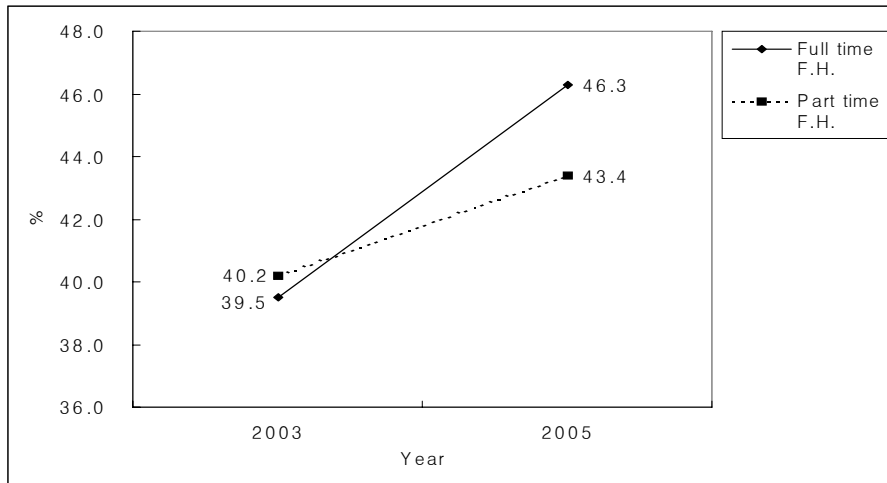
<그림 6> 농가 가정문제의 추이

이러한 농가 가정 내 어려운 문제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경제적 문제와 그 이외의 문제들로 양분하여 농가형태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2003년에는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로 인지한 가구가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사이에 별 차이 없이 나타난 반면, 2005년에는 전업농가의 가정 내 경제적 문제 인지가구의 비율이 겸업농가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시간이 지날수록, 농가

내 가정문제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업농가에 있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에 따른 상승률이 전업농가가 높게

나타났고, 2005년에는 겸업농가에 비하여 그 차이가 증가하여 약 3%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농가형태별 가정 내 경제문제 인지정도의 변화 양상

### 3. 대수선형모형(Log-linear model)

소득 구조에 의한 농가형태(i.e. 전업농가, 겸업농가)에 따라 경제문제를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을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표를 작성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2003년에는 전체농가 중 약 40%가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가정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비율면에 있어서는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카이제곱( $\chi^2$ )검정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검정 결과, 경제적 문

제를 가장 어려운 가정 문제로 인식하는 가구는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chi^2=0.04$ ;  $p=0.84$ ).

또한, 2005년도에는 전체농가 중 약 45%가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가정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비율면에 있어서는 전업농가가 겸업농가보다 경제적 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가정 문제로 인식하는 가구는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chi^2=1.08$ ;  $p=0.30$ ).



<표 1>

교차표

(단위: 빈도(%))				
연도	가정 내 문제	전업농가	겸업농가	계
2003	경제적 문제	386(39.5)	139(40.2)	525(39.7)
	경제 이외의 문제	590(60.5)	207(59.8)	797(60.3)
	계	976(100.0)	346(100.0)	1322(100.0)
2005	경제적 문제	363(46.3)	222(43.4)	585(45.1)
	경제 이외의 문제	421(53.7)	290(56.6)	711(54.9)
	계	784(100.0)	512(100.0)	1296(100.0)

다음으로 대수선형모형(Log-Linear Model)을 먼저 분할표 상의 관측치에 대한 기대치와 로 통하여 그 연관성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적합(Log fitted) 값을 산출하였다<표 2>.

<표 2>

기대값

연도	가정 내 문제	기대값		로그 적합값		
		전업농가	겸업농가	가정 내 문제	전업농가	겸업농가
2003	경제적 문제	387.6	137.4	경제적 문제	5.96	4.92
	경제 이외의 문제	588.4	208.6	경제 이외의 문제	6.38	5.34
2005	경제적 문제	353.9	231.1	경제적 문제	5.87	5.44
	경제 이외의 문제	430.1	280.9	경제 이외의 문제	6.06	5.64

이후 산출된 로그적합 값을 근거로 하여 포화된(Saturated) 대수선형모형을 도출하였다<표 3>. 2003년의 경우, 농가형태( $\lambda_i^X$ )와 경제적 문제 인지( $\lambda_j^Y$ )는 모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Interaction;  $\lambda_{ij}^{XY}$ )

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p=0.82$ ). 또한, 2005년의 경우에도 농가형태( $\lambda_i^X$ )와 경제적 문제( $\lambda_j^Y$ )는 모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Interaction;  $\lambda_{ij}^{XY}$ )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p=0.30$ ).

<표 3>

패러미터 추정값

연도	패러미터	추정치	표준오차(S.E.)	Z값	유의성(Sig.)
2003	$\lambda$	5.336	0.069	76.900	0.000
	$\lambda_i^X$	1.046	0.081	12.963	0.000
	$\lambda_j^Y$	-0.397	0.109	-3.628	0.000
	$\lambda_{ij}^{XY}$	-0.028	0.127	-0.223	0.823

연도	패러미터	추정치	표준오차(S.E.)	Z값	유의성(Sig.)
2005	$\lambda$	5.672	0.059	96.697	0.000
	$\lambda_iX$	0.371	0.076	4.871	0.000
	$\lambda_jY$	-0.268	0.089	-3.005	0.003
	$\lambda_{ijXY}$	0.119	0.114	1.040	0.298

도출된 모형은 로짓변형(Logit Transformation)으로서 패러미터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추론의 결과, 2003년에는 경제적 관련 어려움이 주된 가정문제인 가구가 전업농가가 아닌 겸업농가로 귀결될 확률이 1.03배 높았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 관련 어려움이 주된 가정문제로 나타나는 가구는 전업농가가 겸업농가보다 0.97배로서 낮게 추론되었다. 한편, 2005년에는 경제적 관련 어려움이 주된 가정문제인 가구가 전업농가가 아닌 겸업농가로 귀결될 확률이 0.89배로서 낮게 추론되었다. 즉, 경제적 관련 어려움이 주된 가정문제로 나타나는 가구는 전업농가가 겸업농가보다 1.11배 높게 나타났다.

### V. 결 론

가정 내 경제적 문제는 농촌가구가 인지하는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농가소득구조에 관련된 농가형태, 즉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구분에 의해 연도별 추이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이를 대수선형모형을 통하여 농가형태별로 연관의 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2003년에는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사이에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가정문제로 인지한 가구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겸업농가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5년에는 전업농가의 경제적 문제 인지가 겸업농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농가 내 가정문제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전업농가에 있어서 뚜렷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연도에 따른 상승률이 전업농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2005년에는 겸업농가에 비하

여 그 차이가 증가하여 약 3%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간의 독립성 검정이 확인되어, 두 변수간의 연관성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연관성의 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수선형모형을 통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경제적 문제를 가정 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는 가구는 2003년에는 겸업농가의 경우에 전업농가에 비하여 1.03배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2005년에는 역전되어 전업농가의 경우에 겸업농가에 비하여 1.11배 높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단지 두 개 년도 사이에서 변화가 비교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추이를 기술하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추후 계속되는 농촌생활지표 조사를 통하여 축적되는 자료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함의하는 바는, 전업농가의 가정 내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경제적 문제를 끄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득 또는 소득만족과 관련된 것에서 유추할 수 있음에 있다. 첫째, 전업농가의 특성상 농업소득 의존이 높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농가소득의 연도별 추이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증가, 감소를 반복하여 2005년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를 나타내는 반면, 농업외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많은 소득의 부분을 농업 이외의 소득에 의존하는 겸업농가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므로 전업농가에 비하여 가정 내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소득만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소득만족

도가 낮으면, 상대적인 금전적 소외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증가하나, 반면에 높으면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다른 문제로 인하여 가정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겸업농가의 경우 소득만족이 향상되고 있는 분포를 보이는 것에 반하여 전업농가는 소득만족에 있어서도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에 대한 만족의 감소 또한 결국 농가 가정 내에서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경제적 문제로 꼽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수선형모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전업농가 혹은 겸업농가의 판단은 경제적 문제 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의 여러 여건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므로, 소득과 관련한 가정 내 경제적 문제 인지 정도에 대한 해석은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구분에 따른 하나의 비교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VI. 참고문헌

1. 고보선, 임정빈. (199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91-208.
2. 김수옥, 유병민. (2003).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양상.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5(4), 1-14.
3. 김일철. (1994). 일본 농가에 있어서의 겸업화 과정과 가족유형. **농촌사회**, 4, 127-140.
4.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농촌생활 장기변화 연구: 대구, 낙동강권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수원: 농촌진흥청.
5.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 **2004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수원: 농촌진흥청.
6.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a). **2005 농촌생활지표**. 수원: 농촌진흥청.
7.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b). **2005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수원: 농촌진흥청.
8. 박혜인, 유가효, 김민정. (1988). 농촌 가정생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제14권, 79-97.
9. 오내원, 정명채, 정기환, 박대식, 박병오. (1998).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1998년도 특별분석결과**.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이기영, 송혜림, 임정빈, 이연숙, 김외숙, 조재순, 임혜경, 고성혜. (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2)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15-127.
11. 이영석, 최외선. (1993).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2), 97-110.
12. 정지웅. (1984). **한국의 농촌: 그 구조와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3. 지영숙, 유현정, 윤원아, 홍기남. (1999). IMF와 가정경제생활. **생활과학**, 2, 137-166.
13. 최양부, 오내원. (1986). **한국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전망 1985-2001: 조사 연구 설계1**.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최윤지. (1999). 농가 주부의 경제문제 경험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6차 학술대회**. 138-151.
15. 최재석. (1988). **한국농촌사회 변동연구**. 서울: 일지사.
16. 통계청. (2006a). **농가경제통계**. 대전: 통계청.
17. 통계청. (2006b). **농업기본통계조사**. <http://kosis.nso.go.kr/>
18. 통계청. (2006c). **인구총조사**. <http://kosis.nso.go.kr/>
19. 한상욱, 장상수. (1992). 대수선형모형에 의한 분할표 분석-예비적 고찰. **순천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1, 205-221.
20. Agresti, A. (1990). *Categorical Data Analysis*. New York: Wiley.
21. Fuller, A. M. (1990). From part-time farming to pluriactivity: a decade of change in rural Europe. *Journal of Rural Studies*, 6(4), 361-373.

22. Haugen, M. S., Blekesaune, A. (2005). Farm and off-farm work and life satisfaction among Norwegian farm women. *Sociologia Ruralis*, 45(1-2), 71-85.
  23. Kinsella, J., Wilson, S., de Jong, F., Renting, H. (2000). Pluriactivity as a livelihood strategy in Irish farm households and its role in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40(4), 481-496.
  24. Lien, G., Flaten, O., Jervell, A. M., Ebbesvik, M., Koesling, M., Valle, P. S. (2006). Management and risk characteristics of part-time and full-time farmers in Norway.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28(1), 111-131.
- (2006년 11월 25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